



중국 국내 경제전망 기관, 2012년 경제성장률 8.7%로 전망

왕양비 연구원

■ 해외 경제전망 기관들은 2012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7%대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한 반면, 중국 국내 경제전망 기관들은 8%대의 낙관적 성장률 전망을 내놓음.

- 9월 IMF가 2012년 중국경제가 9.0%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, 10월 들어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수출 부진 심화와 부동산 가격 하락세에 따라 해외 경제 전망 기관들이 연이어 중국 경제성장을 비관적으로 전망함.
- 10월 스위스(Credit Suisse)투자은행, UBS위버그 증권 등 해외 금융기관들은 2011년 4/4분기~12년 2/4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이 7%대로 하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.
- 이에 비해 11월 7일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 리다오쿠이는 중국이 현행 경제정책을 유지할 경우 2011년 경제성장률은 9.2%를 유지할 것이며, 2012년에도 8.5%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.
- 또한, 11월 15일 중국발전개발위원회는 2012년 경제성장률이 9%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, 같은 날 중국국제금융주식회사는 2012~13년 중국경제가 각각 8.4%, 9.0%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.
- 11월 17일 중국 국태군안증권(Guotai Junan Securities)의 경우 2012년 거시경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중국경제가 8.0%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.
- 이와 같이 중국 국내 경제 전망 기관들이 내놓은 2012년 중국 경제성장률 평균 전망치는 해외기관들보다 높은 수준인 8.7%로 보도됨.

■ 그러나 중국경제가 수출 부진 지속과 부동산 과열 완화에 따라 지속적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점이 지배적이며, 중국국제금융주식회사도 2020년 중국 경제 성장률이 5.5~7.5%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함.

- 2012년 중국 부동산 투자 10~15%, 고정자산투자 20%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, 수출도 10~15%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.

(회통망 11/07, 툄쉬 재경 11/15 등)